

 <b>인천광역시</b>	<b>보도자료</b>		<b>인천의꿈*</b> <b>대한민국의미래</b>
	배포일자	2022년 10월 6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자	공 석 ☎440-2416 김성현 ☎440-241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민생현안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 찾는다

- 시의회와 함께 민생현장 찾는 ‘시민행복 소통의 날’ 추진 -
- 첫 행보는 중구 ... 대중교통·씨사이드파크·신포지하공공보도 등 현안 점검 -

인천시가 6일 시의회와 함께 중구 생활민원 현장을 찾았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6일 시 의회와 연계 추진 중인 ‘시민행복 소통의 날’의 첫 목적지인 중구를 찾아 ▲영종하늘도시~영종역 간 버스교통편의 개선 요청 ▲영종 씨사이드파크 하늘구름광장 전망대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복합센터) 사업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행복 소통의 날’은 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10개 군·구의 생활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임관만, 신성영 등 중구 지역구 시의원과 유관부서 공무원은 먼저 영종한라비발디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을 찾아 영종하늘도시~영종역 간 버스교통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논의했다.

신성영 시의원은 “행정구역상 영종1동은 인구가 4만이 넘고, 하늘도 시에서 영종역 구간은 특히 출퇴근 시간마다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심각한 상황으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기존 버스노선의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감축, 장기적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 구간에 내부순환을 위한 신교통수단 신설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서 영종 씨사이드파크 현장을 둘러보며 신성영 시의원은 “영종 씨사이드파크는 서울근교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캠핑장이나 레일바이크, 인공폭포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 인천시에서 이를 적극 홍보·활용한다면 중구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건의했다.

또, 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복합센터)사업 현장에서는 시 제물포르네상스 기획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신포역~답동사거리 간 약 330m 구간을 연장해 신포시장 등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해당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진행단계(공정률 66%)이며 2023년 하반기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임관만 시의원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신포역, 신포시장 등과의 연계성 개선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기간을 단축하고, 사후 행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 강조했다.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민생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단계적인 검토를 거쳐 민원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것이 민선 8기 소통의 첫 걸음이며 앞으로도 행정이 시민의 곁에 한 걸음 다가가도록 발로 뛰겠다.” 고 말했다.

